

현안과제연구
2012. 9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 및 교육/홍보방안

송 두 범
김 종 수

차 례

I. 연구배경	1
II. 이론적 논의	2
III.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동조합의 확산	10
IV. 협동조합의 활성화 예상분야 발굴 및 전망	15
V.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24
VI.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28

I. 연구배경

-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운영기준이 스스로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4섹터로서의 협동조합임을 재인식했기 때문임(김기태, 2012;10).
- UN을 비롯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황영모, 2012;4), 각국정부에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권고해 왔음.
- 우리나라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개별협동조합법률에 기반하여 운영해 왔음.
 -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신용협동조합법(197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년) 등 8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상법과 민법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아니라 2·3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기획재정부, 2012).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충청남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수행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임.

-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접촉하면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general interest cooperatives),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 등과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음.
-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도 ‘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협동조합이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 공유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조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글은 새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 불럭 형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살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 사회적경제는 개별국가 및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규정되었음
- 미국은 시장, 제3섹터의 보완적 개념, 스칸디나비아는 국가의 보완적 개념, 프랑스·벨기에·스페인인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태로 사회적경제를 인식
- 반면, 사회적경제는 경제와 사회를 통합한 것으로 커뮤니티경제발전을 주요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님.

<표 1> 국가별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목적

구 분	사회적경제의 인식	사회적경제의 목적
미 국	시장 및 제3섹터의 보완개념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통한 커뮤니티 경제발전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가의 보완개념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시민사회의 다양한 형태	

-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불일치하는 수요제공,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새로운 시장과 영역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음.

<표 2> 사회적경제의 대두배경과 영역

구분	19세기 초	1980년대 이전	2000년 이후
대두배경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개선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시장실패의 실패 보완 정부실패의 실패 보완	사회역량의 제고 시민사회의 통합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대안
영역	실천영역	실천영역/학문영역	실천영역/학문영역

-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정의에 따르고 있음
- 유럽위원회(EU)
 - 사회적경제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이 이에 포함됨
- 신명호
 - 협동조합들 가운데 사회적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배분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를 제외한 NGO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

<표 3>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예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예	
생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로컬푸드 운동네트워크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	지역화폐, 아나바다 운동단체 등	-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기관	-

자료 ;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5. 2009.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와 특성
- 원칙 : 사회적목적, 사회적소유, 사회적자본 등의 원리로 작동
- 특징 : 복합목적, 복합이해당사자, 복합자원
- 목적 :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초해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충족

[참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특성

조 직	특 성
협동조합	자유 및 공개회원제 동등한 투표권다수결 원칙 회원의 자본참여 및 자본의 가변성 활동분야 : 농업, 수공업, 금융, 소비유통 등
공제조합	자유 및 공개회원제 동등한 투표권다수결 원칙 보험요율에 의한 회원의 회비(보험료)로 운영 자본참여는 없음 자율과 독립 활동분야 : 의료, 생명, 손해보험 보증, 주택융자 등
협 회	자유 및 공개회원제 동등한 투표권다수결 원칙 회원회비로 운영 자본참여는 없음 자율과 독립 서비스제공, 자원봉사, 여론개발/대안제시/정책제언(Advocacy) 활동분야 : 건강관리, 노인 간호, 보육, 사회서비스 등
재 단	수탁자의 재단운영 기부, 증여 등을 통한 자본 조달 활동분야 : 연구, 조사 및 지원,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프로젝트 수행, 구호활동, 건강관리, 노인 간호 등
사회적기업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음 사(私)기업의 기업가정신(이윤극대)과 결합한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 혹은 공동체 사업을 위한 잉여금 재투자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 임의조직, 자선단체 등 그 회사형태가 다양하고 조직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전형수,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 pp.5-6.

- 사회적경제영역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
 -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목적을 지님
 -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

-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

2.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 협동조합 태동과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발전 추세에서 야기된 두 가지 배경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안두순, 2010;236)
-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사회개혁운동
- 소외되고 존립기반을 위협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촉진, 개선 및 확보를 위해 단결하는 움직임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가 정립되었음
-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방법) 사업체를 통하여(수단)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목적)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주체)임
-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함

1)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결사체이며 성, 사회, 인종, 정치,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음, 당사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등한 의결권과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보유함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이 자본조달에 있어서 공평한 부담을 맡고 자본에 대한 관리를 민주적으로 함. 자본금의 일부를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함.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 발생 시 조합발전, 조합원의 편의제공, 내부유보 및 기타 활동지원 목적으로 배분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 자조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에 의한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면,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이 조합원,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 또한 협동조합이 일반대중에 조합에 대한 정보를 홍보함.
- 협동조합간의 협동
 - 협동조합은 동종, 이종, 지역,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협동조합간 협동을 실시함.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함.

2) 협동조합의 유형

① 유형별 분류

- 협동조합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정원자, 2009.2; 19-20).
-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협동조합(먹을거리, 서비스 등), 주택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공제조합
 - 로치데일(Rochdale)과 같이 값비싸고 낮은 품질의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보다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매
 - 조합원의 실직, 집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공제조합, 주택협동조합 등이 소비자협동조합 내에 또는 독립하여 만들어지기 시작
(1800년대 후반 스웨덴 교육협동조합, 1900년 초 일본의 의료협동조합, 최근 이탈리아 문화협동조합 활동)
- 생산자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농민(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프랑스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으로 생산자가 직접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
 - 농업협동조합 : 조합원이 농장 소유 시 농자재 및 농기구 공동구매, 공동이용 등을 위해 조합결성
 - 중소기업협동조합 : 자금, 금융의 상호이용을 위해 조합결성
 - 노동자협동조합 : 정보교류와 관리, 공동 작업을 위해 결성
- 신용협동조합
 - 독일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조합으로 농자재 구입, 생산수단 소유나 공유를 위해 시작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생산자나 중소기업, 소비자, 생활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
 -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1960년 성가신용협동조합이 효시
- 새로운 협동조합
 - 이해관계자협동조합(멀티스тей커홀더:스웨덴), 산소(産消)협동조합(일본의 생산자, 소비자), 캐나다
 - 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유아시설을 운영하는데 교육제공자인 교사, 교육수혜자인 학부모, 복지책임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자하여 만든 조합
 - 일본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조합 산소(産消)생협(에히메 유우

끼생협), 캐나다에서는 생산자조합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와일드 아일랜드식품협동조합)을 결성

② 법적 기반에 따른 분류

<국내 협동조합의 유형 구분>

제1유형 법적 기반 있는 생산자협동조합	60년대 초 정부 주도 아래 법적 기반을 확보한 협동조합 : 농협(축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제2유형 법적 기반 있는 생산자 외 협동조합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설립에 의해 70년대 이후 법적 기반을 확보한 협동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유형 법적 기반이 미비한 협동조합	관련법이 없어 해당사업과 정책관련법에 특별조항을 삽입,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한 협동조합 :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제4유형 법적 기반 없는 협동조합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격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 자활운동계열, 돌봄노동계열, 대안기업계열 등

자료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1). 『한국협동조합섹터의 발전방향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서 재구성.

3.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

-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협동조합운동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와 밀접한 관련을 지님.
- 사회적 경제는 산업자본주의 초기 협동조합, 결사체 등 시민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자활조직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고, 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단일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증대하기 위한 시장조직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최용주, 2009).
- 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부활은 협동조합적 운영원리와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 남부유럽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례와 사회적기업들이 민주적 관리, 잉여의 내부유보, 자본참여 제한 등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실질적으로 지향
 - 사회적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공동체적 연대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량 강

화에 의한 사회적 후생 증대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새로운 정체성 부활

-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주체였던 많은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접촉하면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general interest cooperatives),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 등과 지역사회의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성공여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조 직	특 성
Kimberly A. Zeuli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시장개척(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정제품과 서비스 제공(신용, 돌봄, 보험, 교육, 육아, 주택 등)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통합(소통과 허브역할) ●인구증가(새로운 노동자, 가족) ●인적자원개발(농촌지역리더십개발을 위한 경험 및 훈련기회 제공) ●환경문제 유발 축소(지속가능한 환경 및 환경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
정원각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제시와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 활성화 ●조합원 교육을 통한 지역민주주의 확산과 정착

자료(*): ZEULI, KIMBERLY. 1998. Value-Added Processing: An Assessment of the Risks and Returns to Farmers and Communit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Unpublished PhD thesis)

Ⅲ. 지역사회 내에서 협동조합의 확산

1.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몇 개 국가들의 연대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면 클수록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힘이 더 커지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면 할수록 조합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이 더욱 커지는 조직임
-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과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임. 협동조합은 사업과 운동을 함께 함. 사업의 경쟁력이 없어진 협동조합은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됨.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운동의 요소가 사라진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음
-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개 조합의 힘으로는 거대한 기업과 맞대결을 하기 어려움이 있음. 반면 협동조합을 너무 크게 만들면 조합원의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해결해 왔음
- ICA는 조합간의 협동을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협동조합간 협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조합원의 통제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함
- 단위 협동조합이 모여 구성한 연합회는 이런 협동조합 간 협동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일반화된 형태임. 특정한 사업만 연결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의 사례도 있음(국회사무처, 2010).

2. 협동조합 마을의 건설

- 마을협동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을협동조합은 영국의 지역사회 이

익회사나 캐나다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같이 복합적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관계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조직임. 마을협동조합은 우리의 전통 협동모델로는 품앗이, 두레, 계를 동시에 해나가는 조직임. 품앗이는 1:1 노동력 교환은 물론 다자간 품앗이를 가능하게 하는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나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중인 감가하는 환전 지역화폐 모델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순환하는 호혜적인 나눔을 가능하게 할 것임. 두레는 공동작업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해당될 것이며 계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공제조합,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을 통해 금융자본의 폐해를 극복함. 이렇게 마을단위, 풀뿌리 차원의 협동조직이 살아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연대경제의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고 이는 다시 개별 조직들의 생명력을 강하게 할 것임(김성훈, 2012).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련된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인증요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 첫째로, 마을기업은 시설비 지원을 하고, 지원금 중 20%를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시설비 지원 없이 인건비, 교육비, 선전홍보비, 신제품 개발비 같은 자산취득이 되지 않는 비용을 지원함. 둘째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조직형태가 있고, 정관이 있고, 수익창출이 있어야 함. 이에 비해 마을기업을 훨씬 느슨함. 셋째로,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마을에 기반 할 필요가 없지만 마을기업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읍면리 등의 마을에 기반하고 있음. 즉, 대면적 관계가 가능한 지역에 기반하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먼저 마을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전환가능성이 더 커 보임. 먼저, 먼저, 시설설비 등으로 지원받은 공유된 자산이 있을 때, 주식회사라는 법인격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훨씬 더 당위적일 수 있음. 둘째로, 시군단위를 한계로 하며 더 많은 조합원을 끌어들이수록 성공확률이 높은 마을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보다 협동조합이 더 적합한 법인격임. 현재의 마을기업 인증 구조상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나 비즈니스모델면에서 취약한 초기단계의 기업인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마을기업 중 상당 수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법인격이 필요한 마을관련 지역개발정책들은 특히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마을 관련 정책 중 포괄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인격이 요구되는데, 마을에 기반한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은 가장 적합한 법인격일 수 있음. 포괄보조사업 중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공동소득창출, 마을공동문화조성 등의 사업이 그 예임(김기태, 201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3년간 70억 이내	5년 이내 50억 이내	2년간 30억 이내	2년간 5억원 이내	2년간 2억원 이내	2년간 3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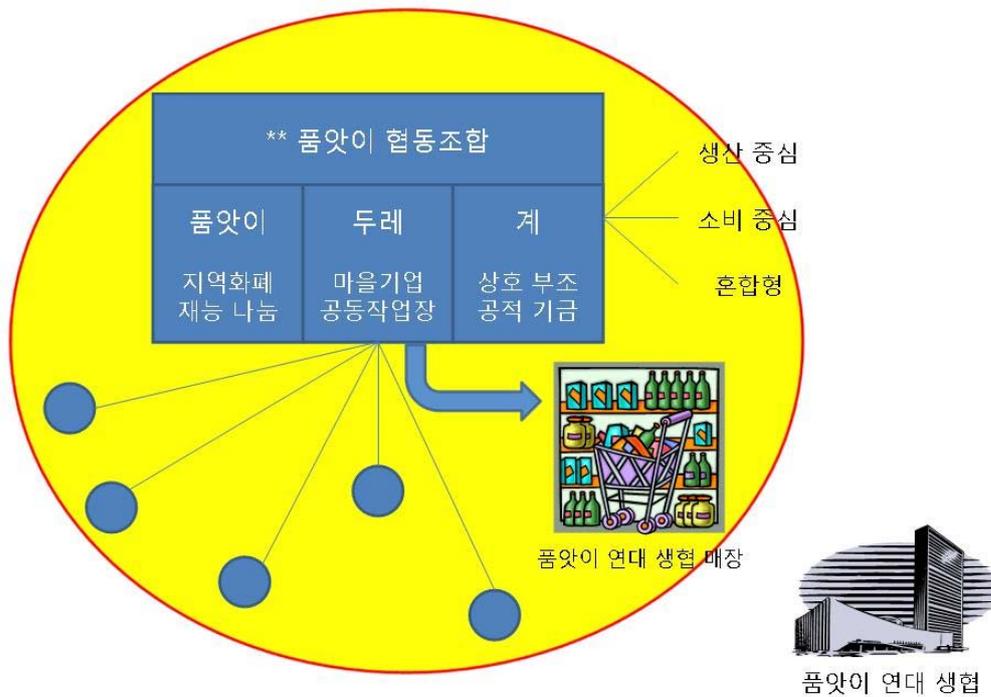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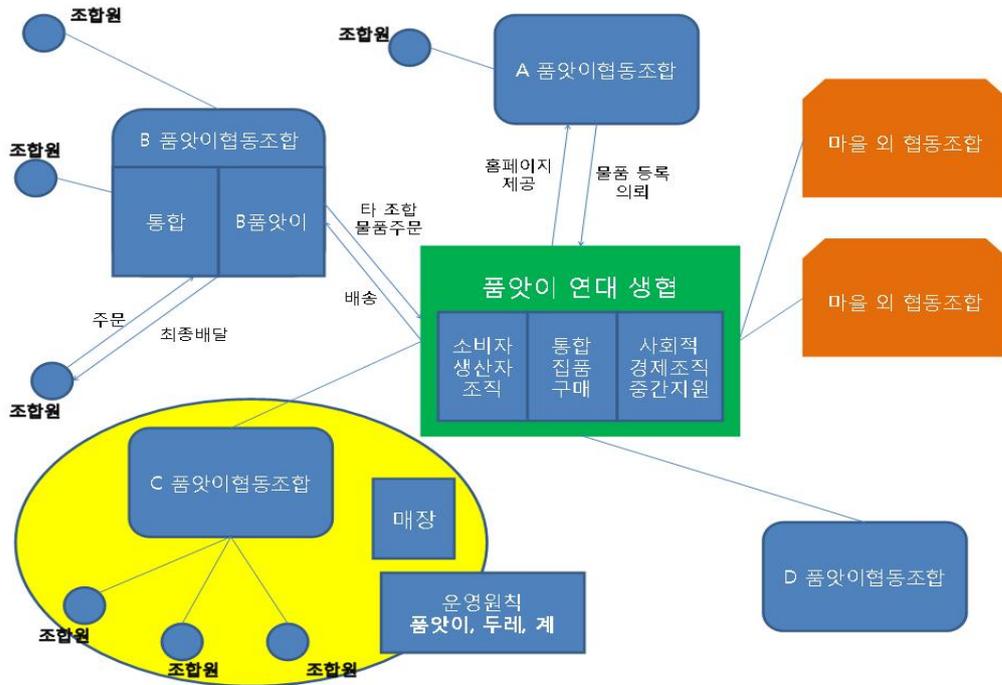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마을종합개발 2개 이상 행정리 마을수, 주민수 비례 권역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리 단위 사업 자부담 20% 주민 50% 이상 참여 주민출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리 단위 사업 자부담 없음 마을 공동문화 발전 마을발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리 단위 사업 체험관광기반시설 자부담 없음 성과에 따라 계속사업
---	--	--	--

토지의 경우 사업비로 구입 불가 (마을땅, 행정땅, 장기임대, 자부담 구입 등)

[그림 5] 포괄보조사업 (일반농어촌 개발분야) - 협동조합이 적절한 법인격
그림 출처 : (주)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지사

- 그렇다면 협동조합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 종류의 협동조합에게 사회의 개혁과 개선을 기대하기는 역부족
-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 : 로버트 오웬의 지역협동체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도시집단, 근린집단, 지구집단
- 도시의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하나의 협동조합 서비스센터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것의 일반적 목적은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이 제공
 - 보험, 금융, 신탁은 전국협동조합조직의 지점
 - 식당과 장례서비스와 같이 잘 발전된 소협
 - 가정용품의 수리, 제과점, 이미용실, 구두수선, 세탁소, 자동차수리 등의 업종으로 각종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 취미나 공예센터, 오락문화활동, 화랑, 음악당, 협동조합문헌을 전문적으로

비치 한 도서관 등 문화활동이 공간을 경제활동의 공간과 최대한 일치시킬 것, 이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감소, 주민간의 교류, 취약계층 지원가능



[그림 2] 마을에서의 협동조합 연계망 예

<사례> 공주 마곡사 소농공동체 실험(귀농귀촌협동조합)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샘골일대
- 주민 : 10가구를 우선선발 후 규모확대
- 두레배움터
 - 마곡사, 전국귀농운동본부와 함께 십승지 소농마을공동체 협약체결

“귀농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농사지를 땅과 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귀농 열풍을 타고 농촌 땅값이 턱없이 올라 농지 한 평의 평균 가격이 5만원을 넘었어요. 그 돈 주고는 도저히 농사 못 짓습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린 셈이죠.” _박승옥 전 시민발전 대표

- 운영방법
 - 토지소유는 마곡사, 귀농자조합에 토지 경작권 부여
- 마을주민과의 관계
 - 토착민과의 갈등극복: 현지인들과 정서적 거리감 줄이는데 주력

마곡사 쪽은 소농마을이 조성되면 자급자족에 필요한 텃밭 농사 외에 밀이나 보리를 키우고, 절 아랫마을에선 제빵·제과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밤을 가공해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팔면 70여 가구에 달하는 지역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리란 판단에서다. 이런 아이디어를 두고 주변에선 우스갯소리로 ‘21세기 사하촌(寺下村) 프로젝트’라 부르기도 한다.

- 농산물 활용
 - 절 아랫마을에 제빵, 제과공장운영



IV. 협동조합의 활성화 예상분야 발굴 및 전망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활성화 예상분야 (충청남도, 2012.2.22)

- 비(非) 협동조합법이 규제를 받아 협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받는 법인 중 상당수가 협동조합의 법인격 획득 가능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법인격을 부여받은 6,000여개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 중 상당수가 협동조합으로 전환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기반을 두고 사단법인 등으로 활동하는 70여개 공동육아협동조합 상당수가 협동조합희망
- 준(準) 협동조합활동을 하거나 협동조합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식회사, 개인법인, 무인가 협동조합 대다수가 협동조합 전환 및 설립추진예상
- 영세상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것으로 예상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위기감을 느끼는 동네 소규모 점소상인들의 협동조합 결성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자활공동체, 돌봄 및 청소사업 등은 이미 상당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협동조합 추진에 유리
 -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 추진
- 무주택자, 낙후지역 주민들도 협동조합 조직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무주택 또는 영세 주택 소유자 중심의 주택협동조합 결성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시는 이미 이를 뉴타운 출구전략 중 하나로 제시
 - 낙후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사회안정망 구축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할 듯

○ 위의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1유형: 협동조합을 통해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협력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

- 이탈리아 볼로냐의 수제구두 협동조합 : 가죽세공업자, 디자이너, 봉제업자, 수선업자 등이 제휴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지역산업클러스터의 선진사례)
- 한국의 지방도시에서도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택배배송 시스템, 주차장 공동이용 등 재래시장활성화의 소프트웨어 제공 가능성 높음
-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가능

<사례 1> (이탈리아) 볼로냐 수공인 연합회-공예와 중소기업 국가연맹(CNA) 이는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문화예술 장인기업 모델임. 볼로냐에서 활동하는 공방·서적·연극 등 문화예술 협동조합들은 볼로냐를 문화창조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 볼로냐 시 발전에 도심 뒷골목의 개성 있는 공방들이 기여한 바가 큼. 볼로냐 시에는 1970년대부터 도시 외벽 밖으로 펼쳐진 주거지와 주변 농촌의 경계지점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패키지 기계제조 기업 등이 들어섰으나 교외지역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역사적 건축물이 몰려 있는 도심은 공동화되기 시작하여 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재생’이라는 ‘볼로냐 방식’의 도심 재생전략을 구축. 1985년부터 도심을 6구역으로 나눠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 활용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였고 시청 앞 마조레 광장에서 ‘두 개의 탑’과 볼로냐대로 이어지는 축을 따라 뒷골목 구석구석에서 생겨난 예술 공방형 기업들은 도심 재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됨. 작지만 강한 공방형 중소기업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은 ‘볼로냐 공법’으로 만들어진 수제 구두등과 같은 세계적인 명품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작은 공방형 기업들은 CNA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를 상대로 기획, 홍보, 마케팅을 펼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방형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가 도심 재생전략을 짜고 금융, 박람회 전시 등의 많은 지원을 함

<사례 2> (국내) 성미산 차병원

- 성미산 차병원은 국내 최초로 조합원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조합형 자동차 정비업체로 2003년 11월 시작되었다. 차병원은 초기 8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2백 1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차병원은 정비가격을 정찰제로 공개하고 부품은 순 정품만을 사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출자금을 낸 2백 10명의 조합원들에게는 가격 혜택뿐만 아니라 병원 주치의와 같이 차량을 관리해 준다.
- 차량주치의 성미산차병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이 한참인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성미산 기슭별목에 맞서 산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낮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지키고 밤에는 퇴근해서 돌아온 아빠들이 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가던 중 처음 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들끼리 밤에 천막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다들 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는 말들이 안심하고 차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 어떤 아빠는 새로 산 차를 잘못 맡겼다가 아주 낭패를 봤다고 하던데... 나도 꾸준히 다니는 정비소가 없을 정도로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아예 만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 결국 성미산 차병원도 94년 공동육아와 생협으로부터 이어져온 공동체운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마을공동체 운동의 한 모습이다.

■ 2유형 :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의 자생력 강화

- 현재의 개인사업자 등록방식보다 원활하게 법인화 가능
- 업종별 연합회를 설립하여 경영자공유, 혁신사례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자생력 강화 가능

<사례 3> (국내) 이천YMCA아가야

이천YMCA아가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찾게 되었다고 함. 시간제 돌봄 서비스(공간서비스)를 이요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모임을 진행하던 중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내 아이만 잘 키워서는 안되니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었음. 그래서 이미 공동육아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함

<사례 4> (스웨덴) 반테르 공동재활조합

- 반테르 지역은 스톡홀름 남부의 3만여명 규모로 높은 실업과 빈곤률의 사회적 문제를 지닌 지역이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 의료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부문에서 문제가 많았다.
- 이런 상황에서 1992년 노인요양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로의 책임 이전을 규정한 새로운 사회서비스법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의 대표들로 새로운 서비스 운영조직과 구조를 마련했다. 이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조절, 사례교육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통해 반테르 공동재활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재활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보호시설과 재활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직원들의 직무환경과 기술 또한 향상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사례 5> (국내) 성미산 두레생협

- 두레생협의 결성은 지역사회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논의에서 시작하였다. 육아문제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육아는 소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기에는 지역주민 일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소재였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은 논의 끝에 ‘먹을거리’를 다루는 결사체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계속 크니까 방과 후를 끝낼 때 짬 전에, 학교 들어 갈 때 짬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대안이다’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 지역의 끌어들이 주체를 이제 우리가 되기로 한 거죠. (공동육아, 성지연, 성미산 대책위 참여 주민)

- 두레생협은 공동육아의 공동체적이고 생태 및 환경적인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유창복, 2009: 34-35). 공동육아는 특정 인구가 관심을 갖는 주제였지만, 두레생협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먹을거리를 내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두레생협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공동체와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특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두레생협은) 유기농 먹거리를 공동 구매하고 공동으로 배달해서 나눠먹는 일이 가장 큼니다. 성인병이라든지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을 중요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농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니까 그렇게 모인 엄마 아빠들이 친해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 그런 주민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들이 생협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창복, 성미산학교 설립위원장 겸 교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김상민, 2005: 60)

■ 3유형: 낙후지역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활성화

- 인구과소화, 고령화된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사회근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시장성이 낮아 영리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음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2008년 기준 인구 3,000명 내외의 작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병의원 및 소규모 고령자 케어시설이나 주유소 등 328개소의 협동조합을 운영.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고용문제에도 순기능

<사례 6> (스웨덴) 우소 지역사회 협동조합

- 1980년대 설립된 우소 지역사회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 사례이다. 1970년대 지역사회가 쇠퇴면서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감소, 그에 따른 인구감소와 관련 산업의 동반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는 관광산업을 새롭게 활성화하면서 LKU의 도움으로 1983년 스키 리프트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현재 마을은 계절별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련 업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주택협동 조합을 통해 늘어나는 주민 수에 따른 주택 수요를 충당하고 현재 자체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으며 고용창출과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협동조합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유급 노동자들의 협력으로 조직되었으며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맡고 있다.

<사례 7> (이탈리아) 레가코프 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합회(Ancab)

- 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합회는 1961년에 설립됐고 전국적으로 약 30만개의 장소에서 40만 명의 회원을 가진 3,000개의 협동조합을 조직함. 회원협동조합, 이들의 컨소시엄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협회이다. 안카브에 소속하는 주택건설협동조합은 직접이든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든, 주택건설 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회원은 소유(개인이나 공동소유의 협동조합)나 임대 부동산(공동소유 협동조합)에서 부동산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다. 프로젝트에는 신규건설과 빌딩이나 농촌 재건축이 들어있다.
- 협회가 진흥하는 새로운 활동에는 젊은 부부, 노인, 학생과 이주민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들과 연결된 것들이다. 이런 활동의 목표는 이렇게 점증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대한 사회적인 새로운 대응을 제공하는데 있다.
- 다른 활동분야는 환경건설 활동이다. 협회에 소속하는 대다수 협동조합은 현재 생태 건설과 생태에 친화적인 건설 활동으로 새로운 환경 친화적 건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소득, 고용과 노동시장, 이민 등에 입각해) 그룹들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공공사업(자금조달과 위치설정)을 한층 경쟁적으로 활용한다.

<사례 8> (이탈리아) 산업지구와 시스템 서비스 ERVET

협동조합이건 일반기업이건 모든 형태의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적 기구 발전 - 연구 개발, 교육훈련, 마케팅과 유통, 금융, 기술이전, 작업장 안전, 환경규제 등 중소기업 을 위한 지원시스템 발전 - 이 기구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경험이 시장경제 전체에 스며들게 됨. 초기에 지역개발기구로 설립된 에르벳과 리얼서비스센터의 분화 - 1974년 설립된 에르벳은 1980년대에 에르벳 시스템으로 불리는 9개의 업종별 리얼서비스센터를 통해 사업서비스 제공. 에르벳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성공. 2002년 ASTER는 지역연구시스템 혁신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기존 리얼서비스센터도 모두 독립

* 50년대 산업지구의 인프라 건설과 금융 지원

-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는 중소기업. 놓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게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

* 70년대 에르벳/리얼서비스 센터 등 사업서비스 지원

- 생산기술은 있지만 금융, 회계 등 사업 서비스, 산업별 기술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에 품질관리, 품질 인증, 자동화와 R&D를 제공. 이들이 없었으면 이곳이 대학과 교류한다든가 수출이라는 길을 열지는 못했을 것임.

- 리얼서비스 센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이들이 80-90년대의 민간 사업서비스 기업의 모델이 된 것은 틀림없다. 센터의 한계가 바로 민간 기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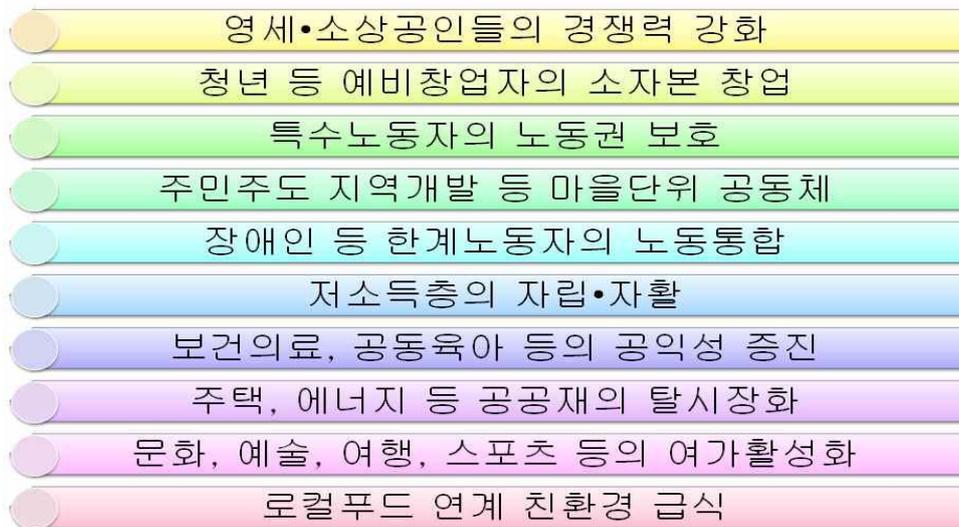
- 이제 에밀리아 로마냐는 레가코프와 CNA가 제공하는 회계, 금융, 로비 등 일반적 사업서비스, 그리고 리얼서비스센터와 뒤이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부문별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훨씬 구체적으로 유용한 사회자본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가나 기술자, 노동자들 사이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대학/서비스센터가 제공하는 일반 지식(codified knowledge)이 결합되었다.

■ 4유형 : 지역의료협동조합적 공익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 비영리 의료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료 체계의 선진화, 지역주치의제도를 통한 선제적 치료 및 과잉진료 방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 완화, 유사 의료생협 문제의 해결통로로 운영

<사례 9> (국내) 한밭레츠 의료생협

- 한밭레츠의 경우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한의사가 가입하고 얼마 후 지역공동체 운동에 뜻을 둔 레스토랑이 가입하였다. 연이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가 가입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품앗이 만찬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얼마후 의료계의 파란을 일으킨 의약분업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양방의사까지 가세한 의료인들과 회원들도 연일 토론이 계속되었다. 특히 새로 가입한 내과 전문의 나준식 회원은 당시 징병검사의사로 있으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이 들을 키우는 생활인으로서 레츠회원들과 관계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았다. 회원들은 그의 건강상담을 지역화폐로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여러 생활재와 노동력을 주고 받으면서 일상적으로 건강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거나 본인이나 가족중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늘 그를 찾아 상담하곤 하였다. 레츠 회원들은 믿을 수 있는 의료인들이 레츠에 존재한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었다. 국가의 의료제도가 부적절하다면 우리는 레츠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힘으로 바른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준식씨와 같은 주치의 역할을 해주던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료생협이다.
- 의료생협이 만들어진 이후 거래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밭레츠는 2009년 현재 400여명이 회원이 1만 5천건 이상의 지역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현재 약 1300세대의 조합원이 6억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며, 의원, 한의원, 치과, 노인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친환경농촌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의 조합원 건강모듬이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은 2천만 두루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입은 직원의 급여와 생활재 구입, 출판물 인쇄, 조직활동비로 거의 지출하면서 새로이 건강화폐 '조각'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에서는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단위 품앗이 공동체가 약 5곳이 새롭게 설립되었으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독일의 지역화폐 중의 하나인 킴가우어 시스템을 접목한 호혜시장 네트워크를 준비 중에 있다.



[그림 3] 협동조합 활성화 10대 유망분야

2. 협동조합 확장 전략

○ 협동조합은 복지전달체계의 하나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비영리활동 촉진법에 의해 불과 십여 년 사이에 무려 4만개의 비영리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70%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령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존에 필요가 있던 주체들이 국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직접 수행하겠다고 찾아오고 이런 형태의 많은 지역적 변화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임금 불안정 고용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간병인, 장기요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 협동조합이 규모 있게 요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의 요양사 급여를 비교해 보면 협동조합의 경우가 더 높습니다. 협동조합이 진출해서 복지 수준을 높여 근로자들의 급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저임금 체계인데, 기존 시장의 많은 이윤들이 중간단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전달체계에서 중간수수료가 적게 빠져나가고, 종사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근거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간병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간병사들의 실질적인 급여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기존시장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노동자협동조합에 주목해야 함. 노동자들이 5인 이상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업을 협동조합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이는 기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법적인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전환하지 못한 대상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해외 유럽 협동조합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파산한 중소기업을 근로자들이 인수하는 경우인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 출자하고, 지방정부나 협동조합 은행들이 용자를 해서 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례인데 중소기업 사장이 은퇴하면서, 함께 해준 근로자들에게 기업을 협동조합방식으로 넘겨주는 사례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럽의 특성상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넘겨줄 때 보통은 경쟁업체 사장인데, 이것이 싫어서 직원들한테 출자 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수십 개의 사례가 나오고 있고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한국 사례로 '크리스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의 사회투자나 사회기부가 생길 것입니다(최혁진, 2012, 목민관클럽 워크숍에서의 발언).

V.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세 단계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단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 제도를 검토 하고, 법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2단계로 세부적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현실과 잘 맞도록 시행령과 시행개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안착되도록 관련 세법, 중소기업법, 세제개혁법 등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관계 활동가, 지역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쉽게 이해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지원체계(교육, 회계 등)를 구축할 것입니다(이대중, 2012, 목민관클럽 워크숍에서의 발언).

1.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직이면서 기업임
- 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와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유럽, 캐나다 등의 사례는 지역사회 단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정부 재정지원 중심의 사회적경제 시책들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인건비지원”이라는 단기일자리 창출정책의 기초 속에서 추진(이강익, 2012;90).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자원동원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유지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유지, 운영 및 경험부족,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수익창출 곤란 등 자립성 취약과 정부의존성이 강한 문제점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제공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자립적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주체들 간의 합의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충남 내 민간 차원의 협의기구 마련

- 민간차원의 활동은 가급적 한국협동조합협의회와 협동조합 진영이 모두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협동조합협의회에는 ICA에 가입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iCOOP생협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의 6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여기에 ICA의 준회원인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사업조직들의 연합체인 한국대안기업연합회와 생협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국연합회를 구성할 때 참여해야 하는 한살림, 생협전국연합회 등도 함께 참여하고, 협동조합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협동조합학회 등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만 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현재 여건이 현 구성원 이외의 다른 조직을 신속히 포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협동조합협의회와 기타 조직들이 사안별로 결합한 연대조직인 “(가칭)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임
- 이를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가칭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기구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싶은 조직들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충남도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기구가 활성화 된다면 지역 내 생협, 농협, 신협 등을 모두 참가시키는 충남 협동조합 연대회의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연대회의를 통해 공동논의테이블이 구성된다면 지역자원조사, 협동조합 공동교육, 협동조합 전환 및 설립지원, 업종연합 촉진, 지역연합으로서의 발전 전망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3. 도, 시군 각 부서별 협동조합 사업영역 발굴 및 조사

- 도청 및 시군 각 부서별 협동조합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영역 발굴

- 사회적 배제 및 소외된 분야, 농업농촌분야, 귀농귀촌분야, 보건의료 등
- 협동조합 설립 시 참여 가능한 단체현황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다문화단체, 로컬푸드단체, 영세상인단체, 청년조직, 문화예술단체, 장애인 단체, 보건의료 단체, 공동육아단체 등

4. 사회적경제정책 추진 지원제도 및 조직 정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조성
-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담하는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조직)을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도, 시·군청에 설치
 - 예)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내에 “충남사회적경제TF팀” 설치
-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협동조합의 지역 내 설립 및 운영을 지원
 - 예)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커뮤니티비즈비즈센터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협동조합에 까지 확장하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지역사회단위 협동조합 전환가능단체 지원

- 지역사회 단위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단체를 발굴, 조사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관련된 분야
 - 로컬푸드 참여농민, 마을공동체, 귀농귀촌자 모임, 생산자 단체, 축산물사육농가, 임산물채취농민 등
- 지역 내 서비스업과 관련된 분야
 - 전통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내 입주상인, 소규모 점포운영자,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 등
-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
 - 자활공동체, 다문화가정모임, 시니어클럽, 돌봄 및 육아보호자 모임, 지역 의료단체 등

- 문화, 교육 및 예술과 관련된 분야
 - 방과후학교 참여단체, 문화예술인 모임, 시민문화동호회, 생활체육단체 등
- 환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분야
 - 환경관련 교육단체, 환경단체, 재활용 단체 등

6. 지역사회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모형 모색

- 지역사회 단위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 ①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주민주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사업홍보, 주민모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내 협동조합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쳐야 함
- ② 지역 내 공론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 단계에서는 지역조사를 통해 지역의제를 뽑는 것을 함께 진행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③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미션그룹을 구성해야 함. 이러한 미션그룹이 이후 실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들일 것임
 - 실제로 이러한 미션그룹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잘 알리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이는 서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기업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④ 지역 내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성
 - 협동조합의 경험을 살펴보면 자본능력과 사업수행력이 미약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로 자율적인 연합을 만들고 상호간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시켜 내는 것이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거대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자본력이 취약한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조직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내며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미션그룹을 통해 협동조합이 구성 되었다면 그들 간의 네

트위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은 기존의 경험이 축적된 사회적기업협의회나 사회경제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룹을 또 다른 협동조합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임
-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협동 금융, 공동교육 인력개발, 공동 기술협력, 멘토형 교차컨설팅, 공동 마케팅, 협동적 내부시장 형성, 협동적 기업문화 조성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ILO에서 권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정부의 지원서비스

- (a)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 (b) 조사와 경영자문 서비스
- (c) 금융과 투자에의 접근
- (d) 회계와 감사 서비스
- (e) 경영정보 서비스
- (f) 정보와 공공관계 서비스
- (g) 기술과 혁신에 대한 자문 서비스
- (h) 제도적 그리고 세제 서비스
- (i) 마케팅을 위한 지원서비스
- (j) 적절한 곳에서의 다른 지원 서비스

VI.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1. 대상별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협동조합 조직 내 교육 필요

-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경쟁력의 기본이다. ICA는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라며 협동조합 교육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협동조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협동조합은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비롯한 모두가 협동조합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상호간에 제공해야 한다.

-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협동조합을 알려주어야 한다. ICA는 "협동조합은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이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해 없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광고를 많이 하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협동조합을 잘 이해시키고,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젊은 세대에게도 협동조합의 필요성, 협동의 중요성을 항상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에서도 경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협동의 필요성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을 합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협동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에 협동조합의 내용을 넣는 활동이 활발히 벌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협동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학교를 통한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지역사회 단위 사회교과서 등에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음
- 일반도민들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민간단체 등에 협동조합아카데미를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이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공무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

-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협동조합 과정을 설치하거나, 협동조합 특강 프로그램을 개설
- 도, 시군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등 연구소모임을 구성하여 학습(워크숍, 세미나 등)
- 그밖에 흥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현장 실습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임

○ 공무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의 예(공무원교육원 연계)

회차	제목	내용
1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연계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연계
2	협동조합의 역사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3	협동조합의 현황	-세계협동조합의 사례와 현황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4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해설	-기본법 제정 경과의 이해 -기본법과 시행령 해설

4) 협동조합을 지망하는 조직들에 대한 교육

-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진입하려는 조직들에게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충남사회적경제아카데미의 강좌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강좌는 협동조합의 개념, 역사 등 이론적인 논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협동조합으로 실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등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분들을 모셔 실질적인 것들을 병행한 학습이 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컨설팅은 협동조합 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1달에 1번 대상자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임
- 조직 대상 협동조합 교육의 예는 아래와 같음

회차	제목	내용
1	협동조합의 역사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2	협동조합의 현황	-세계협동조합의 사례와 현황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3	협동조합으로 살아가기 1 (사례연구)	-공동육아협동조합 -자동차정비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4	협동조합으로 살아가기 2 (유형연구)	-소비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 령해설	-기본법 제정경과의 이해 -기본법과 시행령 해설
6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필요사항 -질의응답 및 집단상담

5) 지역 내 활동가들에게 협동조합 교육

- 이미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활동가들(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단체, 사회적기업가 등 포함)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는 위의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지역 내 자발적인 공부모임 등을 파악하여 지역아카데미, 혹은 지역 동아리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흥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기획하고 있는 교육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활동가들에게 해외의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가들이 해외의 선진사례를 실제 체험하고 돌아와 충남에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을 것임. 이미 함께 일하는 재단 등에서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충남 협동조합 기업가 날개달아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임

2.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1) 원주 협동조합 심포지엄의 사례

① 심포지엄 개요

○ 목표

- 협동조합 운동을 통한 지역 사회 만들기 미래비전 공감

- 협동조합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 및 방법 찾기
- 협동적 미래 지역 공동체 건설

- 주제 :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시즌Ⅱ : 협동조합, 원주의 길을 묻다.
- 주최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주관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의 해 준비위원회
- 일시 : 2012년 5월 12일(토) 10:00 ~ 17:00
- 장소 : 상지대
- 대상 : 네트워크 19개 회원단체 및 관련 사회적 기업, 관련 기관, 원주시, 강원도, 일반 주민 등

<표 4> 협동조합, 원주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 프로그램

내용	시간	세부내용	담당
접수·개회식	09:30~10:30	*경과보고 *참석자 소개 *대회사 *축사 *연대사	*준비위원회 *자원봉사자 *사회자
기조강연	10:35~ 12:00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추구 해야 할 비전	*최혁진 사회적 기업 진흥원 본부장
점심식사	12:00~13:00	*점심식사	*준비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13:00~14:30	*협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소위
		*협동기금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기금소위
		*원주푸드협동조합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원주푸드 TFT
		*지역 호혜(互惠)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간사
종합토론	14:45~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장
대동의 시간	16:35~17:00	*협동적 지역 미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참가자 일동 다짐	*참가자 일동

② 원주 심포지엄 각 분과별 의견 도출 결과

○ 원주푸드협동조합 설립 논의

- 종전에 학교급식 부분 등 공공급식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공동대응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

- 어 생산자조직부터 다시 만들어 보자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중앙물류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외부시장으로 놓고, 내부시장을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원친연)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원친연과 원주푸드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유통, 공급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음.
- 원주푸드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기 전까지 협동조합의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리라 기대.
- 원주푸드의 최대 수혜자는 농민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적인 관점이 아닌 원칙적인 부분을 잘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주푸드에 대한 것은 현재 생협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생산자 조직인 농협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 협동기금 조성에 관한 논의

- 협동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공감은 조성되어 있으나 기금의 조성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의견이 존재하리라 생각함.
- 논의의 1차적인 관점은 기금의 조성자체가 지역의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임.
- 지금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금의 조성부분이라 생각됨.
-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각 단체들의 상황에 맞게 총회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음.
- 현재까지 일부 기존에 조성된 금액과 각 단체별로 조성이 된다면 1차적인 기금의 사용처는 신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진행하기로 함. 예를 들면 물류협동조합 같은 2차 협동조합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협동기금이 자생적으로 조성하는데 한계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기금조성은 돈의 조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 기금조성의 문제는 각자의 조직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를 각자의 조직을 넘어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부논의를 많이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협동기금 조성 방법

- 회원단체 초기 출자금 및 분담금을 통한 조성
- 잉여금을 통한 조성
- 지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금 조성
- 조합원 상호이용거래를 통한 기금 조성
- 협동조합 내부 금융을 통한 조성
- 협동조합 지역사회 외연 확장을 통한 조성

○ 협동교육에 관한 논의 결과

-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음.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산하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회원단체 임직원 및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실무, 동향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해 네트워크를 건전한 요람체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함.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추진 체계

구분	추진사항	세부 추진사항	처리사항
1단계	교육위원회 신설	현 네트워크 산하 교육위원회 신설	위원장, 위원 선정 (단체별, 직능별 위원 선정)
2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예산 수립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과정 확정	예산수립(네트워크예산, 수강료, 기부금 등), 커리큘럼, 강의시간, 강사섭외(강사 POOL 구성), 출결 관리, 조 단위학습, 장학금제도, 수료증교부
3단계	일정 수립	강의 일정 등 제반 Timetable수립	구체적인 강의 로드맵 확정
4단계	교육 홍보	홍보활동(보도자료 등)	네트워크 회원단체 및 유관단체, 지자체 등 관 홍보
5단계	사후 평가 작업	위원들의 사후 평가	수강생들의 요구 재분석, 강의내용 평가 등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교육프로그램

협동조합(운동)의 정의, 가치, 원칙의 개념체계
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역사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역사
협동조합(운동)의 본질과 특징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본질과 특징
국내 협동조합 등의 현황 및 사례
국의 협동조합 등의 현황 및 사례 (일본, 유럽, 북미협동조합)
원주지역 협동조합 등의 현황 및 사례 1
원주지역 협동조합 등의 현황 및 사례 2
원주지역 협동조합 탐방 1 (무위당/생명 주제)
원주지역 협동조합 탐방 2 (평화/협동단체 주제)
국내 8개 개별협동조합 관련 법규 해설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사회적 경제의 이해 1
사회적 경제의 이해 2
사회적 기업의 이해 (설립 절차 등)
협동기금에 대한 이해 1 (기금조성)
협동기금에 대한 이해 2 (기금운영)
협동조합의 운영평가 척도와 전통적 재무회계 및 사회적 회계
협동조합의 회계 관리
협동조합의 인사급여 관리
협동조합의 노무관리
협동조합의 세무관리
협동조합의 매장운영관리
협동조합의 경영관리
사회속으로의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적 방법
협동조합과 지방자치
협동조합과 공동체 운동
협동조합과 생명사상
협동조합과 생태 환경운동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 1 (협동조합운동의 시작)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 2 (재해대책사업, 한살림선언)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 3 (민주화 운동의 역사)
원주협동조합(운동)의 역사 4 (최근 10년간의 활동과 동향)
무위당 생명사상 1
무위당 생명사상 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들의 경영/회계/노무 진단 1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들의 경영/회계/노무 진단 2
원주지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영역의 쟁점
기존 개별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기본법으로의 전환의 장단점
국내 협동조합 운동의 최근 동향 및 쟁점
국의 협동조합 운동의 최근 동향 및 쟁점

2) 서천군 사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안내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유도

- 교육기간 : 2012. 9. 7 ~ 11. 23(3개월간)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 15:00~18:00(3시간)/12회
- 교육기관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교육장소 :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 수강대상 :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단체, 사회적(마을) 기업대표, 서천주민기업, NPO, 공무원 등
- 교육내용 : 협동조합의 이해, 관련법에 대한 해설,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협동조합 설립하기 등 실무
- 교육비 : 무료
- 접수기간 : 2012. 8. 6 ~ 8. 29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 방문, 팩스 접수
 - 서천군 일자리종합센터 (봄의마을 내 2층)
 - 전화) 953-1919 팩스)953-1918 이메일) scec1919@daum.net
 - 서천군 경제진흥과 ☎ 950-4357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교육과정 참가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HP) ☎		
주소			
이메일			
직업			
수강목적	참여 동기		
	협동조합 설립시 관심분야		
아래는 해당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단체)명	※ 단체 참가일 경우		
사업장 주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 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		
주요사업			
근로자수	※ 정규, 비정규 포함 또는 기존 조합원, 단체회원 수 등		

3) 금천구 사례

오래된 미래,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이해부터 창업까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동조합 기업창업을 돕고자 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협동조합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대상 :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주민,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는 주민
- 주최 : 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아이쿱 한우물생협, 서울의료생협
- 기간 : 8월 29일-9월 26일까지 총 6회
- 장소 : 금천구 평생학습관 1강의실(금나래아트홀 건물 지하1층)
- 내용 : 협동조합의 현황 및 사례, 유형연구,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등
- 일정

회차	일시	제목	내용
1	8. 29(수)	협동조합의 역사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2	9.7(금)	협동조합의 현황	-세계협동조합의 사례와 현황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3	9.12(수)	우리마을협동조합	-한우물생활협동조합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4	9.19(수)	협동조합으로 살아가기 1(사례연구)	-공동육아협동조합 -자동차정비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5	9.21(금)	협동조합으로 살아가기 2(유형연구)	-소비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6	9.26(수)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해설(집단상담)	-기본법 제정경과의 이해 -기본법과 시행령 해설 -질의응답 및 집단상담

- 수강료 : 무료
- 교육신청기간 : 2012.8.24(금) 까지
- 신청 및 문의 : 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또는 별첨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금천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4) 성북구 사례

제2기 성북구 협동조합 마을학교

협동조합! 두드림 (Do Dream) 개강

개 요

- 교육기간 : 2012. 9. 4 ~ 9. 25 (총 4회 운영)
매주 화요일 10:00 ~ 12:00
- 교육장소 : 성북구 평생학습관(중암사거리 동일하이빌 3층)
※ 단, 3강은 성북구청 성북아트홀(4층)
- 교육대상 :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모집인원 : 100명
- 신청기간 : 2012. 9. 3(월)까지
- 수 강 료 : 무료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및 방문
- 문의전화 :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 920-2313)

강좌내용

일시	교육장소	강좌내용	강사
9.4	평생학습관	협동조합 들여다보기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
9.11	평생학습관	협동조합 뽐내기 (협동조합 운영원리)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부이사장)
9.18	성북아트홀	협동조합 맛보기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마을 산책)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9.25	평생학습관	협동조합 상상하기 (국내협동조합의 현장사례)	권순실 (전)전국생협연합회 회장)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보도자료, 2012.2.8
- 김기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그 주요내용, 지역리더, 통권 25호, 지역재단, 2012.
- 김기태, 협동조합 활성화는 도민이 행복해지는 길, 정책FOCUS, 충남발전연구원, 2012.
-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2007.
- 박범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과제,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과제, 제19차 지역리더포럼, 지역재단, 2012.
-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5, 2009.
- 안두순, 경제위기와 협동조합의 역할,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8권 제2호, 2010.
- 이강익, 지역단위 협동과 연대의 경험과 교훈 : 협동조합의 지역화 전략, 지역재단 창립8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역재단, 2012.
- 전형수,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
- 정원각, 협동조합운동의 개념과 의미·역사·현황 그리고 각국의 사례, YMCA 간사학교, 2009.2.
- 최용주, 사회적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 : 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추계학술대회,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
- 충청남도, 협동조합기본법 공포에 따른 우리도 대응방안 연찬회 계획, 2012.2.22.
- 황영모,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준비와 실천, Issue Briefing, Vol.74, 전북발전연구원, 2012.
- Shin Irina, 한국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1,p.34.
- ZEULI, KIMBERLY. 1998. Value-Added Processing; An Assessment of the Risks and Returns to Farmers and Communit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Unpublished PhD thesis)